

힐데가르트 원화 해설

Interpretation of Hildegard's Original Illuminations



Die Seherin 여성예언가

Die Seherin(여성예언가)은 힐데가르트가 처음으로 영적체험을 한 순간을 묘사한 삽화입니다. 이 장면은 ‘생명의 빛’의 부름을 받아 영적 여정을 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스키비아스(Scivias)』 전체 서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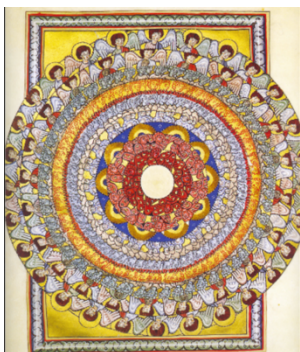
Die Seherin(The Seeress) is an illumination depicting the moment Hildegard first experienced her spiritual vision. This scene, evoked by the call of the “living light,” becomes the catalyst for her decision to embark on a spiritual journey and serves as the opening moment of the entire Scivias narrative.



Das Weltall 우주

이 삽화는 힐데가르트가 받았던 세 번째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우주와 창조의 신비를 동심원 형태로 상징화합니다. 바깥의 불꽃층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위로를, 그 안쪽의 어두운 악의 세력을, 이어지는 공기층과 물층은 믿음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중앙의 땅(모래)과 산은 인간 존재의 고귀함을 드러내며, 전체적으로 ‘창조-질서-영성’이 하나로 통합된 우주관을 보여 줍니다.

Based on Hildegard's third visionary experience, this miniature symbolizes the cosmos through concentric circles. The outer flaming ring represents God's judgment and consolation; the dark sphere within signifies the forces of evil; the succeeding air and water layers stand for faith and baptism. At the center, the earth (sand) and mountain underscore humanity's unique role. Altogether, the image conveys an integrated cosmic order of 'Creation-Order-Spirituality.'



Die Chöre der Engel 천사들의 합창

천사들의 합창(Die Chöre der Engel)은 하늘의 위계에 따라 원형으로 배치된 아홉 계급의 천사들이 조화를 이루며, 신과 인간을 잇는 중재자의 역할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이 삽화는 힐데가르트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아홉 합창단’의 구조를 독특하게 해석한 시각 세계입니다. 바깥쪽 두 합창은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사를 상징하고, 그 안 다섯 합창은 오감을 통해 십자가의 상처로 정화된 인간의 감각을 나타냅니다. 가장 안쪽 두 합창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영적 중심을 형상화합니다. 이를 통해 하늘과 인간,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신비로운 중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This miniature visually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Nine Choirs of Angels based on Hildegard's spiritual vision. The outer two choirs signify the service of body and soul to God; the five inner choirs represent the human senses purified by the wounds of Christ; and the innermost two choirs embody the spiritual love of God and neighbor. Through this layered structure, the illustration reveals a mystical mediation where heaven and humanity, the inner and outer, are harmoniously united.



Der Sündenfall 죄의 추락

이 삽화는 ‘죄의 추락’을 통해 악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루시퍼의 교만한 반역과 천사 군단의 분열은 빛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그래서 창조는 본래 상태를 잃게 됩니다. 삽화 상단의 밝은 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지킨 선한 천사들이며, 어두운 그림자와 안개는 죄의 어둠과 분리된 세계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이브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로, 죄 이전의 원초적 순수와 인간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This miniature portrays the ‘Fall of Man’—the emergence of evil into human history. Lucifer’s proud rebellion and the fragmentation of angelic beings undermine the divine order, plunging creation from its intended state. The luminous stars above represent the good angels who remain in God’s grace, while the surrounding dark mist signifies the shadow of sin and separation. Eve, depicted alongside Adam, embodies the ‘Mother of all living’—a bearer of primordial innocence and the promise of human redemption.

Der Erlöser 구세주



이 삽화는 ‘빛나는 불꽃’ 원형 안에 천상의 푸른 빛 구를 배치해, 만물을 창조하고 심판하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그 불꽃에서 내리쬐는 빛은 어두운 공기 구체 속 여섯 날의 창조 장면을 비추어, 죄로 어둠에 빠진 세계 위로 하느님의 구원이 임함을 보여 줍니다. 원의 맨 아래 진흙 덩어리로 표현된 인간은 말씀의 불꽃에 덥혀 새 생명을 얻고, 오른쪽 상단에서 빛나는 인물로 거듭나며 구세주의 도래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한 ‘돌아옴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This miniature places a ring of blazing fire around a celestial blue sphere, symbolizing God’s presence in creation and judgment. From this fire, a shaft of light pierces a dark globe depicting the six days of creation, illustrating divine redemption breaking into a fallen world. At the base, a lump of clay represents humanity, warmed by the Word’s flame, then transformed into a luminous figure ascending in glory. Together, these elements convey the promise of return and restoration through Christ’s sacrifice and resurrection.

Die wahre Dreiheit in der wahren Einheit

참된 일치 안의 참된 삼위



이 작품은 참된 일치 안의 참된 삼위는 단일한 동심원 구조 속에 성부·성자·성령 삼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본질적 통일을 드러내는 신비를 시각화한 삽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바깥의 은백색 원형은 전능하신 성부 하느님의 완전하고 변함없는 통일을 상징합니다. 그 안의 사파이어 빛 형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화해를 나타내며, 붉은 불꽃은 성령의 현존과 생명력을 불같이 전합니다. 이 세 요소가 하나의 동심원 안에 배치되어, 삼위가 본질적으로 한 분 하느님임을 묵상하게 합니다.

‘The true Trinity in true unity’ is an illustration that visualizes the mystery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harmoniously blending together in a single concentric circle structure, revealing their essential unity. The outer milky-white circle symbolizes the Father’s sovereign unity and perfection. Within it, the sapphire-hued figure represents the Son’s incarnation and reconciling work. The ring of red flame signifies the Spirit’s presence and vivifying power. Together, these three elements, arranged in concentric harmony, invite contemplation on the mystery of the Triune God’s essential on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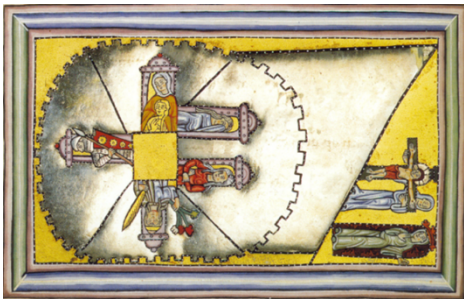
Erloschene Sterne 빛을 잃은 별



Erloschene Sterne(빛을 잃은 별)은 사탄(루시퍼)과 그의 천사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고 하느님으로부터 추방되어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장면을 압축하여 묘사한 삽화입니다. 이 작품 안에서 큰 별은 원래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던 루시퍼를, 그 주위를 둘러싼 작은 별들은 그의 천사 동료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옥좌 바로 아래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빛을 흩뿌리며 이동하다가, 교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할 때 모든 빛이 꺼지고 새카맣게 변해 혼돈의 심연으로 내던져집니다.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 교만의 위험성과 하나님의 질서 회복을 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Erloschene Sterne(Extinguished Stars) is an illustration that depicts Satan (Lucifer) and his angels losing their light due to pride and being banished from God, falling into darkness. The central star represents Lucifer in his original glory, surrounded by a host of angelic beings. These extinguished stars trace their journey from God's throne southward, their light once reflecting divine proximity. As pride led Lucifer to usurp his Creator, their brilliance is shown snuffed out—turning jet-black—and hurled into the abyss. Through this vivid imagery, the miniature conveys the peril of hubris and the theme of divine order restored.

Der Turm des Ratschlusses 신적 섭리의 탑



Der Turm des Ratschlusses(신적 섭리의 탑)은 구원의 성벽 한가운데에 서서 아브라함의 할례로 예표된 하느님의 섭리와 탑 안에 드러난 다섯 신적 덕목을 시각화한 삽화입니다. 철빛을 띤 탑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상징하며, 그 “신의 섭리”가 그리스도의 구원활동과 교회를 예고함을 보여 줍니다. 탑 안에서는 다섯 개의 아치 아래 다섯 신적 덕목이 배치되어, 각 덕목이 인간의 오감(五感)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기울어진 은빛 기반 위에 탑과 덕목이 함께 서 있는데, 덕목들은 서로 그리고 탑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 상호 의존과 협력을 상징합니다. 이 조형은 공동체 안에서 신과 인간이 함께 완성하는 “구원의 여정”을 은유적으로 전합니다.

The Tower of Divine Providence stands in the center of the wall of salvation and is an illustration of God's providence, foreshadowed by Abraham's circumcision, and the five divine virtues revealed inside the tower. The iron-hued tower symbolizes Abraham's circumcision, foreshadowing divine counsel toward Christ's redemptive work and the Church. Within its arches stand five divine virtues, each linked to one of the human senses, indicating their manifestation in the faithful. Supported by a tilted silvery base, both tower and virtues lean toward each other—signifying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Altogether, the composition serves as a metaphor for the “journey of salvation” achieved through divine-human collaboration within the community.

Gebäude des Heils 구원의 도성



Gebäude des Heils(구원의 도성)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위에 세워진 신성한 구조 안에, 구약의 인물·시대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배열한 삽화입니다. 원 안에 세워진 직사각형의 성벽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구원의 토대임을 드러냅니다. 사면의 모퉁이는 각각 아담(남쪽), 노아(동쪽), 아브라함·모세(북쪽),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교회(서쪽)를 상징합니다. 성벽을 이루는 두 겹의 벽—눈부신 빛의 벽과 견고한 돌의 벽—은 신앙의 이성과 온 인류를 아우르는 보편적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구조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직 진행 중임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은유적으로 보여 줍니다.

The Building of Salvation is an illustration that symbolically arranges figures and events from the Old Testament and salvation through Christ within a sacred structure built on the faith in the Trinity. A rectangular fortress rising within a circle symbolizes that the work of salvation is founded on faith in the Triune God. Its four corners represent Adam (south), Noah (east), Abraham and Moses (north), and Christ's redemptive work and the Church (west). The dual walls—one of radiant light, the other of solid stone—depict both the speculative insight of faith and its embrace of the universal human community. The slight tilt of the building evokes the ongoing nature of salvation and the inherent imperfection of humanity.

Fünf Gotteskräfte im Turm des Ratschlusses

결의의 탑 속 다섯 덕목



Fünf Gotteskräfte im Turm des Ratschlusses(결의의 탑 속 다섯 덕목)은 탑 내부의 다섯 아치에 각기 다른 빛나는 기호로 나타낸 하느님의 다섯 가지 능력을 조화롭게 배치해, 영적 통찰과 힘의 근원을 시각화한 삽화이다. 탑 안의 다섯 아치는 각각 지혜(Wisdom), 이해(Understanding), 조언(Counsel), 용기(Fortitude), 지식(Knowledge)을 상징하는 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다섯 덕목은 성령의 선물로서 신앙인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적 자원입니다. 아치들이 탑의 중심을 향해 모여드는 배열은,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아가 영원한 지혜에 이르는 여정을 은유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성은 “결의의 탑”이라는 명칭대로, 하느님의 지혜와 힘이 신앙인 안에 굳건히 자리함을 드러냅니다.

The Five Divine Virtues in the Tower of Counsel is an illustration that harmoniously arranges the five powers of God, represented by different shining symbols on the five arches inside the tower, to visualize spiritual insight and the source of power. Within the tower's five arches, each luminous emblem represents one of the divine gifts: Wisdom, Understanding, Counsel, Fortitude, and Knowledge. These five powers are gifts of the Spirit, providing believers with the spiritual resources to discern and act in faith. The converging arrangement of the arches toward the tower's core symbolizes the soul's journey toward divine wisdom. In keeping with its title, this “Tower of Counsel” imagery underscores how God's wisdom and strength are securely vested within the faithful.